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21 겨울 2차 연구회 발제문

차영선

6장 성스러움의 실재 _

-미르체아 엘리아데(1907~86)

엘리아데의 생애: 1907년, 루마니아 태생. 1933년 부쿠레슈티대학으로 돌아와 요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45년 파리 소르본 대학의 종교학 객원교수가 됨. 1956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종교학자로 불림.

1. 자연물과 문화적 산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태초에 신들이 존재케한 장엄한 체계의 한 부분을(p.359)볼 수 있다. 그래서 옛적에 질병과 죽음에 둘러싸인 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재생과 불멸에 대한 소망을, 항상 초승달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신을 얻었다(p.363).

물은 모든 것을 청결케하는 매개체로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한다(p.364).

바위는 강함과 부동성으로 인간성의 불안정함을 초월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태양이 매일 아침 일출할 때 개인의 재생과 불멸의 징조를 본다(p.369).

-이처럼 자연적 물체 속에 초자연적인 것이 주입되는 것을 성의 변증법(dialectic of the sacred)이라고 부른다(p.358). 엘리아데의 작품에는 『성과 속』(*The Sacred and the Profane*)이 있다.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성스러운 것이 드러난다. 성과 속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통해서 성이 드러나고, 성속에 속이 들어있기에 성과 속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문화적 산물인 고대의 도시, 신전이나 집까지도 세계상(imago mundi)으로, 거룩한 조물주의 행동으로, 창조 때 처음 만들어진 세계전체를 반영하는 모습이다(p.354). 이때 어떻게 자연물이나 문화적 산물을 통해 성현을 느끼거나 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태초에 자연이 생성될 때를 기억한다면,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뿐, 우리가 거주하는 돌들, 모든 자재들은 태초 때부터 생겨난 물질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엘리아데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의 관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목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학파의 후계자이다.

2. 신화와 제의

엘리아데는 의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창조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본다. 보통 그 의례들은, 세상이 생성된 바로 그때(in illo tempore, 그 때를 뜻하는 라틴어), 신들이 행한 일을 재연하는 것을 포함한다(p.274). 즉, 신비적인 최초의 시간, 창조 때의 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신화적 제의를 거행할 때 매번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 (신화나 제의의 원형적)관념들은 같다고 엘리아데는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건들도 단 한 번의 결정적 순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례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반복되면서 우리들에게도 매번 유일하고 최종적인 개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다(p.377-8).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재가 항상 현재로 있는 영원은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신의 날은 지나가는 나날이 아니라 항상 오늘이라는 것이다.”(종교학의 이해 p.307)

이런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엘리아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후계자라 할 수 있다.

3. 일상적 삶과 행위

유대교는 성스러움을 역사 밖에서 뿐 아니라 지금 이순간의 역사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선포한다..... 유대교는 성스러운 역사적 사건들이 연속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p.377). 우리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속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거룩함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p.356).

일례로 고대시대에서는 사냥이나 농경, 놀이나 투쟁 등과 같은 모든 행위가 성스러움 즉 거룩함에 참여하는 제의적 행위였다. 원시인들이나 고대인들은 항상 모든 일이나 행위를 신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그럼으로써 삶 자체는 하늘과 땅, 성과 속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다(p.353).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스스로의 지향과 의식에 의해서 신에게 상달되는 거룩한 전례 행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엘리아데의 통찰은 우리 일상의 삶을 새로운 눈, 곧 거룩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그의 업적은 성안에 속이, 속안에 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앴다.

설사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에도, 그래서 오류를 저질렀을 때에도,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때에도, 그래서 후회와 회환이 밀러올 때에도, 이런 과거에 일어난 일조차도 엘리아데에게는 현재의 거룩한 전례 행위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불행 또한 예언자들은 탈출해야할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기에 역사 속에서 (견딜 가치가 있다고 했다)....왜냐하면 하느님은 역사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여 사건들(침략, 점령, 전쟁 등)을 통해 그의 뜻을 드러내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들은 하느님과 관련된 인간의 상황들이 되고 그 상황들은 이전에 부여 받을 수 없었던 종교적 가치를 얻는다는 것이다.”(p.377)

그러므로 엘리아데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신화-제사의 회복은 이렇게 설명된다.

신화적·제사적 시간의 회복을 통해 현대인의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되면서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또 의례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초자연물

인간이 신화나 제의를 통해서, 일상적 삶과 행위를 통해서도 성스러움이 드러나지만, 초월적인 존재가 직접 스스로를 드러낼 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도 초월자 자신의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루돌프 오토 역시 성의 개념을 다루지만, 오토가 사회나 사회적 필요성에 그 개념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오토는 개인들의 독특하며 극적인 경험에 관해 쓰면서 성스러움을 라틴어로 미스테리움(mysterium)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누멘(numen)에서 온 말이기도 하다 (p.348-9).”

엘리아데는 루돌프 오토처럼 성스러움 양상을 초자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후설이나) 반 데르 레이우와 같이 판단중지 등 현상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치 않는다... 오히려 초자연성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종교학의 이해 134-6)

제이나 신화가 인간의 혼돈을 사라지게하고 성스러움을 회복하게 하며 인간조건을 극복하게 하지만, 요가나 샤머니즘도 인간조건을 극복케 함으로써, 엘리아데는 요가, 샤머니즘을 통해서 삶의 돌출구를 제시한다.

5. 요가와 샤머니즘

-요가수행자를 요기라고 하는데, **요가**(Yoga)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요가 yoke 라는 말에는 부정형 어미a 가 붙는다. 삶의 무게와 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요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 학파들이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으나, 삶의 무게와 멍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 학파는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로, 요가 및 명상을 제시했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유출된 것들 가운데 최초의, 또한 최상의 것은 신의 정신(Nous) 이성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영혼이 유출되며, 제3의 유출이 자연의 물질과 육체를 포함하는 감성계이다. 마침내 맨 마지막에 어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삶을 영위하면서 자꾸 어둠으로 하강하는데, 이때 빛을 향해서 상승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과 요가의 목적이 이처럼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란 고통이 있다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실제로도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자유를 얻는 순간 신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 요가의 종류도 많지만, 그 대표적인 효과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엘리아데에게 **샤머니즘**은 그 유래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엑스터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기법(techniques of ecstasy)"이다. 엑스타시가 탈혼 현상이라면 포제션은 병의(憑依) 상태의 신들림 현상이며, 트랜스는 일시적인 신내림이나 신오름에 의한 망아 현상이다.”([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12월호] '나쁜 무당' 하나 때문에 전체를 폄하할 순 없다)

엑스터시·트랜스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샤먼의 출발점이다. “샤먼은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자기를 넘어섬으로써 치유자로 거듭나는 것과 같이, 누구나 고통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내적으로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샤먼은 엑스터시·트랜스 능력을 활

용해 무엇을 하는가(치유자는 무엇을 하는가?). 우선 치유와 예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샤먼이 될 수 있을까. '부르심'을 받아야 샤먼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일종의 강요인 '부르심'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결단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서로 맞선다. 부르심, 즉 소명(召命, call, vocation)을 강조하는 샤머니즘의 전통은 그리스도교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샤먼은 '심리치료사' 치유은사자, 성직자, 목회자 등을 말하기도 한다.“(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12월호] '나쁜 무당' 하나 때문에 전체를 폄하할 순 없다).

결론

엘리아데의 종교관은 샤머니즘이 아니다. 그에게 샤머니즘은 종교라기보다는 종교현상이다. 또 그의 종교관은 범신론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자연물을 통해서도 단지 신의 피조물이라는 성스런 현상만을 볼 뿐이지, 자연물자체가 신은 아니기 때문이다.”(종교학의 이해 p.43) 자연물 뿐 아니라 십자가, 성물 등도 마찬가지다. 치유은사자나 심리치료사, 성직자 목회자와 같은 신의 대리자 또한, 성현일 수는 있어도 신 자체는 아니기에 숭배의 대상일 수 없다. 엘리아데가 “사실은 변장한 그리스도교 신학자이고 심지어는 선교사라고 주장한다. 그는 하느님을 믿고, 모든 종교를 호의적 입장에서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교가 그 중에서 참된 최고의 형태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p. 391)“.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인 미르체아 엘리아데가 원시종교인 요가나 샤머니즘을 심층 연구했는가? 인류의 태초로 올라가면, 기독교 등 현대종교가 없을 때에도 인간은 신과 통교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의미이며, 이런 인류학적 관점의 종교 해석에서 볼 때,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학파의 후계자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엘리아데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전체의 종교경험, 집단적 종교경험은, 신화, 제의, 의례, 예배, 불공, 원초적 시간, 특별한 시기, 은총이 풍성한 시절인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그때(in illo tempore, 그 때를 뜻하는 라틴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아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플로티누스의 후계자라 볼 수 있다.

대니얼 팰스,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조병련·전중현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유요한, 『종교학의 이해』 현대사회의 종교학, 세창 출판사, 2020.